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오)54859 전북특별지치도 전후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9월 30일(화) 제 3182호

## 전북은행 예대마진 1위 전북도민은 희생양?

### 김성수 도의원, 임시회서 지적 "전북은행 금고 운영 불균형" "금고평가형평성등반영필요"

도내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의 이자장사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은행이 수년 간 예대마진 전국 1위 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서울 등 타지역 영업망 강 화를 위해 오히려 전북도민들이 희생하 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최근 도 정질문을 통해 "전북은행이 수년 간 높 은 대출금리를 토대로 예대마진 전국 1 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올 해 전북도금고 선정 평가시 반영할 계획 이 있는지"를 도정에 따져 물었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이날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 금 고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꼬 집었다.

그는 "현재 전북도 금고는 1금고를 농 협, 2금고를 전북은행이 나눠 맡고 있지 만 운영 실태를 보면 오히려 2금고가 안 정적 자금을 운용하며 이익을 거두고 있



김성수 도의원

다"고 전제한 뒤 "평가에서 1등을 한 은행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 조로 향후 개선되 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

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 를 담당하는 1금고 농협의 평균잔액(평 잔)은 3천7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특별 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는 2금고 전북

이처럼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전북은행은 수년 간 전국 예대마진 1위 를 기록했다는 것. 김 의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1금고가 일반회계만 맡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평잔은 6천7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의 높은 예대마진 구 조 역시 금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적자금은 공익성은 물론 균형성을 최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전북 특별자치도가 전북은행에게 공적자금 운용을 계속 맡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정철 기자

## 새만금공항 법정·적자 난관···전북 미래성장동력 '날개' 꺾이나

### '법원1심 취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트라이포트' 핵심 인프라 지연 시 개발 전반 악영향 우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1심 취소 판결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 트로 선정돼 중앙정부와 전북이 함께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새만금 개발 전반을 위협 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현재 군산공항 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군산공 항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활주로 를 공용하고 있어 미군 훈련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연착이 발생하고 하루 왕 복 5편이라는 운항편수 제한으로 도 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 래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취항이 안보상 이유로 불허되면서 전북 도민들은 동남아·중 국·일본 등 출국 시 인천공항까지 3~4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공항 이 부재한 전북은 사실상 항공교통 측 면에서 '도서벽지' 수준의 소외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관점에 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본(공항 95개)에 비해 공항 인프라(국내 15개)가 크게 부족 하다. 지방 항공교통 인프라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 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 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선 취 항이 필수적이다. 고부가가치 물류・ 비즈니스 활동의 중심지 도약,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관광·MICE 산업 유치 등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제 공항이라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대목

무엇보다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되 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에서 공항 은 핵심 요소다. 2036 하계올림픽 유 치와 전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필 수 교통시설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소멸 위험 4위에 해당하는 심각 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전주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 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을 통한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 확보와 지역산업 성장 발판 마련이 대두된다.

현재 농생명용지 내부개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 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 만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이 지연될 경 우 기업 투자유치 어려움과 물류기반 구축 지연 등으로 새만금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정부 국정과 제에 명시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프 로젝트다. 2026년 새만금 주요 사업에 는 총 1조 455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 보됐고, 공항·철도·도로 등 SOC 예산 은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

특히 내부개발·수목원 조성 등 기반 시설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2023년 새 만금 주요 SOC 예산의 78% 대거 삭감 으로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공항 사업의 지 연은 전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군산공 항의 한계, 새만금지역 국제 접근성 확보, 국민 이동권 보장, 전북 지역 소 멸 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고 려할 때로 새만금국제공항은 항공교 통 소외지역인 도민들의 하늘길이자 새만금 미래 비전 실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제 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전북도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35사단, 시군 지역 및 직장 민 방위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자치도,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

### 유공자 표창·안보교육 등 진행 민방위 정신 계승·안전 강화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 노홍석 전북특별자 치도 행정부지사, 35사단, 시군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 념행사'를 개최했다.

민방위대는 1975년 "내 마을, 내 직장 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창설되어, 국민 스스로가 국가 안보와 안전의 주체 임을 보여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전환점이자,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 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민방위 유공자 표 창, ▲민방위 대원의 신조 낭독, ▲민방

위의 노래 제창, ▲민방위 안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과 개인에게 도지사 표창 7점 및 35사단 장 표창 3점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민방위 유공 도지사 표창 기관은 무주 군, 개인은 순창군 순창읍 지역민방위대 장 정정애님 등 총 6명이 수상하였고, 제 35보병사단장 표창에는 익산시 동산동 지역민방위대장 유미자님 등 총 3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민방위대는 창설 이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 켜온 든든한 힘이었다"며, "헌신과 노고 를 아끼지 않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께 깊 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방위 정신이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주 올림픽 유치 '빨간불'…문체부 "협의 진행 중" 해명

### 윤준병 "전주 계획 IOC 부적격" 문체부 "유치 협의 지속" 반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대한체육회와 전북이 최종 작 성하여 제출한 '전북 전주'를 중심으 로 전국 10개 지자체 연대를 구성해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IOC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 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 국 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보고 서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도민 들께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하계 올림픽 유치' 사안에 대해 전북

도와 대한체육회는 조속히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위원으로 활동할 때 "문체부가 끝까지 국정과제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꺾 지 않았다"며 "(이는)대한체육회가 문 체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자체 공모 절 차를 통해 하계올림픽 유치도시로 선 정한 '전북전주'가 'IOC 개최지 요건' 과 '기재부 승인 요건' 등을 지금까지 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되었 다"고 공개했다.

현행 '국제행사의 유치 심사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 유치시에 총 사업비의 40%이상을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 규정 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북전주는 올 림픽 유치에 따라 총사업비의 40%이 상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 북과 전주의 재정자립능력으로는 불 가능하다. 또한 경기장 배치와 선수촌 위치, 객실 수 등 IOC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윤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전주 올림 픽 유치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검토한 문제였 으며 문체부는 전주올림픽 유치 당시 나 현재 모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의원의 문제제 기에 대해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부 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은 사실

이 아니고, IOC도 변경된 개최도시 선 정에 따라 문체부·전북·대한체육와 실 무협의를 통해 자문을 교환하고 있는 등 지속협의 단계"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문체부는 전주올림픽 유 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IOC와 2036 올림픽 유치 신청에 따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무산되거 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가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 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종목별로 분산 개최를 한다면 탈락 요 건은 아니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인도 의 경우도 분산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 전북 수소기업 ㈜아헤스, 인도 에너지기업과 '맞손'

##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화 전환점 수전해 기술·그린수소 공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인도 의 대표 에너지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은 전북 수소산업이 국제 무 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망이다.

기업 ㈜아헤스와 함께 인도의 주요 에 너지기업인 GH2 Solar, 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업무협약 문기업으로, 지난해 GH2 Solar와 5년간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아헤

스 이중희 대표, GH2 Solar의 아누라 그 자인(Anurag Jain) 대표, KPI Green Hydrogen & Ammonia의 로비 라자세 아헤스,인도서 3,765억 수출성과 카람(Robbi Rajasekharam) 사장, KP Group의 모이눌(Moinul) 사장&전임이 사 등 양측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참여 기업들은 ▲수전해 설비 기술 교류 ▲ 그린수소 분야 공동사업 추진 ▲인도 현지 시장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 뜻을 모았다. 이번 MOU는 전북 수소산 업이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글로벌 전북자치도는 29일 도내 수소전문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헤스는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전 총 3,76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한 데 이어 최근 20억 원 규모의 실질적



전북도는 29일 도내 수소전문기업 ㈜아헤스와 함께 인도의 주요 에너지기업인 GH2 Solar, KPI Green Hydrogen & Ammon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성과를 거두며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 는 인도 기업으로 2024년 인도 에너지 공사(SECI)의 525MW 규모 수전해 프 화했다.

GH2 Solar는 태양광 EPC와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하

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 전북 K-POP 아카데미 '결실'…음원 전 세계 발매

### '동그라미' 음원 주요 플랫폼 발매 지난8월 '전북 K-POP 아카데미' 9개국 20명 청소년 전원 녹음 참여

동그라미(Go beyond create 해 실력을 다졌다. harmony)' 음원이 28일 정오 스포티파 이, 멜론, 벅스뮤직 등 주요 플랫폼을 통 해 정식 발매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가 글로벌 K-컬처 허브 도약을 위해 지 난 8월 운영한 '2025 전북 K-POP 아카 데미'의 성과물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완주 등에 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튀르키예, 카자흐 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9개국 청 소년 20명이 참가했다. 전 세계 50개국 558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보컬 · 댄스 집중교육과 함 께 전주 한옥마을, 아원고택, 부안 내 소사 등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K-POP 전문 트레이너 강의와 아이돌 특강, 오디션 무대, 쇼케이스 공연을 통

이번에 발매된 '동그라미'는 송재혁, 최한울 프로듀서가 공동 작곡·작사했으 며, 아카데미 참가자 전원이 보컬 녹음 에 참여했다. 긍정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circle)을 바탕으로 전 세계 청소년의 희망과 연대 메시지를 담았다. 전북에서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주 처음 제작된 K-POP 아카데미 오리지널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도는 이번 음원을 공식 SNS, 각종 축 제, 국제 교류 무대에서 적극 홍보하고, 전주올림픽 유치 홍보 및 문화올림픽과 결합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K-POP 아카



지난 8월 운영한 전북 K-pop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녹음에 참여한 음원 '동그라미'가 28 일 주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됐다 <사진=전북도>

데미에서도 교육생 훈련곡으로 활용해 지속성을 확보한다.

이경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전북 K-POP 아카데미는 전통문화와 K-컬처가 융합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

이라며 "첫 음원 '동그라미' 발매를 계기 로 전북이 K-콘텐츠 허브로 도약하고,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 선수단, 전국기능경기대회서 40명 입상

### 38개 직종 104명 선수 '열전' 金3·銀4·銅4개 등 우수 성과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6일 광주광역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 렸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 도 선수단은 총 40명의 입상자를 배 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은 자동차 정비 등 38개 직종에 104명의 선수 동메달 4개, 우수상 6개, 장려상 23 고 소감을 밝혔다. 개를 수상했다.

계공업고등학교가 프로토타입모델 링 직종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 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2년 연 속 금메달을 차지했고, ▲전주공업 고등학교는 자동차차체수리 직종에 서 지난해 동메달 2개에 이어 올해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기술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남원제일고등 학교는 요리 직종에서 금메달 1개 를 획득했으며, 요리 직종에서의 금 메달은 2002년 이후 23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이다.

남원제일고 요리 직종 금메달 입 상자인 강다현 선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며. 이번 성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 과는 혼자가 아닌 모두의 노력 덕분 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배 움에 힘쓰며 정진해 사회에 기여할 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인이 되겠다"라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학교별 주요 성과로는 ▲전북기 게는 시상금과 함께 메달별로 고용 노동부장관상 및 한국위원회 회장 상이 수여된다. 또 직종별 상위득점 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 대표선발평가전 출전 자격이 부여 되며,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추석 맞아 남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캠페인 "전통시장, 지역경제 중요한 축"

전북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남원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 기 행사와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군산4)과 이정린 의원(남원1), 임종명 의원(남원 2)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했으 며, 이만근 상인회장과 전통시장 활성 화 방안을 논의한 뒤 장보기를 이어갔

특히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 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 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미리 을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생 필품 등을 구매해 남원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 문승우 의장은 이에 대해 "전통시장 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소상공인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 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북특

> > /장정철 기자

## 전북 최초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오수의견' 개장

## 복합문화공간으로지역관광활성

도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임실군 오수 면 금암리에서 반려동물 동반 '오수의 견 국민여가 캠핑장' 개장식을 개최했 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 롯해 심민 임실군수, 도·군의원, 반려동

운 지역 관광자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캠핑장 조성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반려동 물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오수반려누 리'와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 성했다. 이 사업은 반려가족에게는 새

100억투입임실 '오수반려누리' 조성 물 가족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새로 로운 여가 문화를, 지역에는 관광 활성 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한

>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은 약 9,000㎡ 부지에 조성됐으며, 오토캠핑 데크 22면과 카라반 사이트를 포함하 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샤워실, 위생 관리 시설 등 반려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췄다.

/장정철 기자

## 전용태 도의원, 학교 전기재해 예방 조례 제정

사업 △기타 교육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를 통

해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

적인 대응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을

### 시설점검·예방교육강화·복구지원 학생·교직원 안전 확보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 안군)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 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 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 고,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사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예기 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 다. 특히 전기시설 노후화,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기 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 육감은 매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 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전기재해 유형과 현황 파악 △대응 매뉴얼 마련 △예방·복구



전용태 도의원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예방과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부적 인 사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예방사업에는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및 정기적 안전 점검 △누전 차단 기와 같은 인증제품 및 최신 안전기술 의 우선 적용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전기재해 사례 분석과 대응 매 뉴얼 보급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 최 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 시설물 복구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응 장 비와 인력 지원 △사례 연구 및 매뉴얼 보강 등이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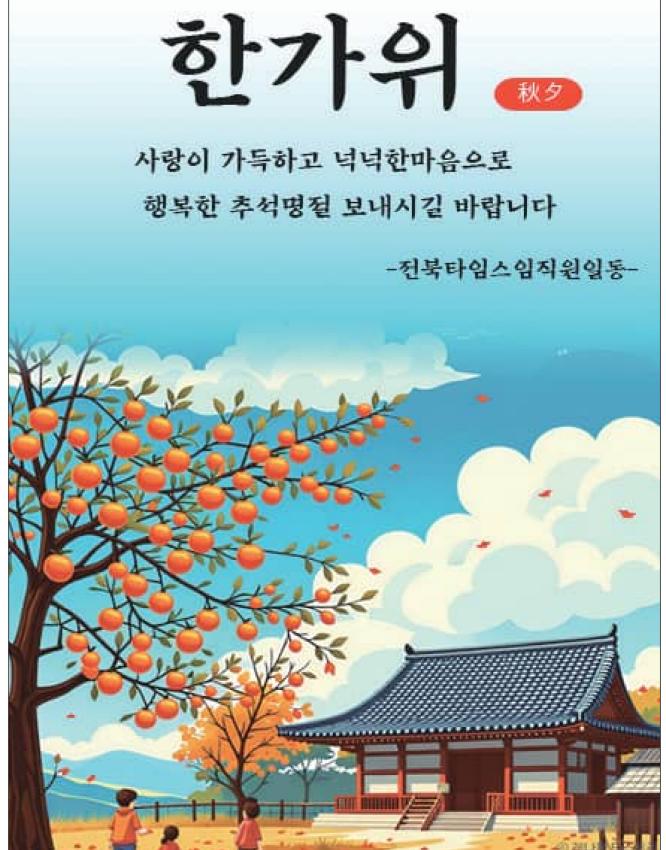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 전 예방교육도 중요한 축이다. 올바른 전기 사용법, 안전수칙 준수, 전기재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 감이 필요하다고 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육청 은 지방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 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교육현장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강 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기 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 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 의 전기재해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 실질 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학생 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타임스

## (주)자광, 관광타워복합개발 '사업계획 최종 승인' 완료

### 29일사업계획승인완료 옛 대한방직 부지에 조성 총사업비약6조원

㈜자광(회장 전은수)은 지난 8년간의 노력 끝에 9월 29일자로 최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 했다고 29일 밝혔

이에 따라 ㈜자광 앞으로 △감리자지 정공고 △입찰 계약 △안전관리계획서 △주택분양모델하우스 건설 등을 속도 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사 착공을 위해 시공사와 공



사도급계약 조건 협의를 병행해 나갈 예 정이다.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은 옛 대 한방직 부지(23만㎡)에 조성되는 관광타 워복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6조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triangle$ 생활 인프라  $\triangle$ 관광  $\triangle$ 문화 · 공공시설까지 포함된 '복합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은수 회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은 도시개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모범 사례를 이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이제 소규모 농업인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직접 판매한다!"

###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가입규정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 식품부)는 지난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 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 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땅끝푸른들영농조합(대표 민정현)은 지난 8월 거래처 소개로 온라인도매시장 을 알게 되어 판매자 가입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연매출 요건 미충족으로 거 절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이유로는 온라 인도매시장에 참여하려면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 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 등 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 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 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우선 매출 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 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 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 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도매 이 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 시장의 거래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농 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 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형

성과 안정적인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배송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 고, 스마트 APC를 대폭 확충해 산지 단 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 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땅끝푸른들영농조합 민정 현 대표는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니,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 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 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LX, 키르기스스탄에 K-주소 컨설팅

K-주소 기반 연수 교육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 장 어명소)가 키르기스스탄 토지 자원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소관 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와 LX공사 가 K-주소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됐

이번 연수에서 키르기스스탄 공 무원들은 한국 주소체계의 역사, 유형, 법·제도 및 도로명주소로의 주소체계 개편사업의 이해 등 강 의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주소 기반 산업서비스 제 공 현황 파악, 주소활용 시례 견학 등 현장학습을 통해 한국주소정보 시스템의 주소데이터 구축 · 관리 체계를 체험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원들은 한국주소정보시스템 의 효율적인 운영구조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데이터관리 체계, 다양 한 산업서비스 제공 현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LX공사가 주관한'2025 주 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및 '2025 K-Geo Festa'행사에 참가해 AI 등 신기술과 융합하는 주소 및 공간 정보 산업의 미래상도 경험했다.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톡토 수토프 부청장은 "이번 연수를 통 해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한국주소 체계에 대해 깊이 알게됐고,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 은 "LX공사는 키르기스스탄 주소 체계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 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 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 는 물론, K-주소체계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상수도사고 대응합동모의훈련실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순창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과 함께 오는 30일 순창군 적성정수 장에서 토론식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

합동훈련은 2020년도에 전북지방 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라북도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섬진강 내 취수시설 증 설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해 적성정수 장에 고농도 망간이 유입된 후 제거 다. 되지 않은 망간이 수용가까지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현장대응본부 구성 △사고 상황 전파 △비상연계 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정수처리공정 복구 및 주 민지원 등 사고 조치에 필요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송성욱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 과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수도사고 발생 시 각 기관이 위기 대응 매뉴얼 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 해 수용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며 "내실있는 정기훈 련을 통해 상수도 사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6월 1일 기준 산정된 121호 대상 10월 29일까지 접수 11월 20일 조정·공시 예정

전주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올해 6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1호의 개별주 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 는 고시는 오는 30일 진행진다. 혔다.

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 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 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축 등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후 한국 (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 또는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 이의 신청이 가능이 가능하다.

전주시 곳곳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또 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

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와 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

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 '특별방범활동' 전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 역전 파출소(소장 류창희)는 오는 10월 12 일까지 2주간 특별방범활동을 추진 도 위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예방"에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인파 밀집 예 상 지역인 전주역 주변과 노쇼사기 발생위험이 높은 숙박업소·상점 및 금융기관·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 소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특별방범 범죄예방진 다. 단을 통해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체감 안전 있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통학 로, 놀이터 부근 등에 연계순찰 전개

또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우아동 자율방범대, 인후동 자율방범대와 범 죄우발지역 주변 합동순찰이 진행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청사 별관, 리모델링 본격 추진

### 현대해상 건물 등기 이전 완료

전주시가 시청사 별관 확충을 위해 옛 현대해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본격 화한다.

시는 지난 8월 29일 현대해상 소유의 건물이 전주시 소유로 등기 이전이 완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청사 별관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 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지난해 12월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을 순차적으로 지급한 데 이어, 마지막 잔금이 납부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연면적 1만4616㎡(지하 5층~ 지상 15층)의 현대해상 빌딩은 전주시의 공식 청사 별관으로 편입됐다.

본사와 직원들은 모두 이전을 마쳤고, 시 다. 는 최근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간 확대  $\Delta$ 주차 편의 개선  $\Delta$ 회의실 확충 식으로 사업을 결정해 매입비 235억 원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 등 시민 중심의 과 리모델링비 55억 원 포함한 총사업비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등 분산된 사무공간을 통합할 예정이다.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행정 수요를 충족



이를 통해 시는 본청과 별관 간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민원서비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현대해상 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구상이 정평가와 물리적 실사 등 절차를 차질 없

이에 앞서 시는 당초 신축 청사 건립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와 단계적 이전을 시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도금 지급에 이어 지난달 잔금 지금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건물 시는 이 공사를 통해  $\triangle$ 민원인 전용 공 때입을 통한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방 우려가 있던 청사 확충 사업을 조기에 안 29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시청사 일대가 전주시 행정의 새로운 축 이후 내년 1월 1차 이전과 3월 2차 이 동일 규모의 청시를 신축할 경우보다 훨 전 등 단계별 입주 계획에 따라 대우빌딩 씬 낮은 비용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재정

한 모범적인 지방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감 이 진행했으며,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최종 매입 조건을 확정했다. 계약금과 중 순조롭게 마무리함으로써 장기간 표류

정화했다. 시는 이번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기존 이자 구도심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 새만금청,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공동 대응 본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의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 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29일 전북자치도와 함께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다. 이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대 응 전략', '헴프 수출전용 특구 조성' 방 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추진 중인 '헴프 수출전용 특 구 조성'을 공동 대응 과제로 설정하고, 적정 입지, 규제 특례사항 및 기업 유치 전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워 킹그룹'을 상시 운영하며, 기업 목소리 를 반영한 규제 특례와 제도개선 과제 를 분과별로 심층 논의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합동 도상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9 일 2025년 하반기 긴급구조통제단 합 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 상황을 가정 해 복합재난 발생 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 재난 대응 매뉴얼에 중 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각 기관 실무자들이 실제 상황 과 유사한 환경에서 초기 대응 절차 와 협조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 응 역량 등이 강화됐다.

훈련은 전주완산소방서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청, 전주완산경찰서, 제9585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전주시보건소, 예수병 원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긴급구조지휘 대의 현장 지휘 절차 △현장안전점검 관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현장과 상 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 △출동 구 급대의 다수사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 자원 관리 △상황별 조치 사항의 통 합관리 등이다.

/김영태 기자

## 중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신속히 추진해야"

###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불공정거래 부당행위확대우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7월 15부터 9월 19 일까지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 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 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쇼핑몰 조사대상은 쿠팡(162), 네이버(173), G마켓(73), 11번가(70), SSG닷컴(59), 무신사(102), 기타(51) '배 달앱' 배달의민족(166), 쿠팡이츠(134), 요기요(50) '숙박앱' 야놀자(100), 여기 어때(100)' 등이다.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 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 에 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확대 우 등)"로 나타났다. 려를 낳고 있다.

이유로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 (복수응답) 질문에서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 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 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답변 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이 가장 많았다.

나아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 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 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

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답변이 많았으며 "법 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 치로는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 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

>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 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 체들은 매출액 평균 20% 정도를 플랫 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

> 개별 응답 내용에는 온라인쇼핑몰 총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배 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 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 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 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 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아 야 하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 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 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농식품부, 249 전통시장서 환급행사

중기중앙회, 제2차 '디지털전환위원회' 개최

### 10월 1~5일까지 개최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 최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들에게 구매 금액 최대 30%를 1인 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환급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해 시장 내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 도선 등을 따라 환급 부스를 방문하 면 본인확인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활 용하면 된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 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 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비대면 법인 입출금 계좌 가입 프로세스' 시행

### 'JB 기업플러스 통장' 인터넷뱅킹 통해 개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은 법인고객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비대 면 법인 입출금 계좌 가입 프로세스'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5월 법인 비대면 예. 적금 가입 프로세스 시행에 이어 이번에 법인 입·출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만 입·출금 계좌가 가능했던 법인 고객 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 인터넷뱅 킹을 통해 법인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실 명 확인을 거쳐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상품은 'JB 기업플러스 통장'으로 법인 및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또 1기업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서비스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전북은행 및 타행 CD/ATM 출금, 입·출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 금통지서비스(SMS) 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월 기준 이 예금의 평균잔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제공한다.

> 전북은행은 법인고객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JB와 콕(Corp)! 선물이 콕!' 이벤 트를 진행중으로, 이벤트기간동안 전북 은행 입출금통장에 매월 말일 잔액 및 월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추첨 을 통해 전북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 (총 20명)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벤트 종료 시점인 10월 말일 했다. 잔액과 이벤트 기간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실 시해, 쿠잉 미니냉장고(총6명) 또는 삼성 에어드레서(1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규 프로세 스 시행으로 지역 외 법인 거래 확대 및 자금량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객의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를 적극 지원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 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여의도 파크원 타워 II 회의실에서 '2025 년도 제2차 디지털전환위원회'를 개최했 가 활발히 이뤄졌다.

'디지털전환위원회'는 중소기업 디지 털 전환에 대한 현장 애로 수렴과 정책 적 대안 모색 위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 표, ICT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 고있다.

제단체이자 200만 이상의 고객을 보유 한 종합 공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영 환경 속에서 중

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한병준 디지털전환위원장은 "중소기 업 현장에서 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수요 자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보완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민간 영역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경 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장기 전략 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러 전문위원의 의견을 경청해 연내 전략을 발표할 예 정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기원, 가을철 농작업 진드기 '주의'

### 긴팔·긴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당부

기을 수확철을 맞아 야외 농작업이 늘 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 술원(원장 최준열)은 예방수칙을 철저 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 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국내 주요 감염병으로는 쪼쪼가무시증 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 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 린 후 10일 이내 고열·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고 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농작업, 제 초 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주로 발생한다. 진드기에 물리면 2주 이내 고열・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치명률 이 약 18.5%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긴팔·긴바지 착용 등 피부 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 △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작업 후 즉시 샤워 및 작업복 분리 세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신속 방문 등 을 지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권택 자원 경영과장은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진 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스스로 예방수칙을 실천 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확기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 안전교육·복지 나눔 활동

아미고의 집 방문·지원

아농목지시설 '아미고의 십'을 방문해 '119 안전복지 나눔의 날'을 운영하며 안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전교육과 복지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아동보호시 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아미고의 집은 2004년 설립된 공동생 활가정으로, 카푸친 수녀님들이 엄마이 자 친구처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 살피고 있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덕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과 피난 요령 교육을 비롯해 심폐소 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교육에는 특별히 카푸친 수녀회 소속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29일 수녀님들이 직접 참여해 위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안선의

아울러 현장에서는 혈압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생활용품 지원이 함께 이뤄

교육을 통해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

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나 눔은 지역 사회 동반자로서 실질적 복지 와 안전을 함께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 로도 아미고의 집과 같은 복지시설과 손 잡고 안전을 나누는 소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LX, 키르기스스탄에 K-주소 컨설팅

### K-주소 기반 연수 교육 주소관리 역량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 명소)가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 무원을 대상으로 주소관리 역량 강화 를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와 LX공사가 K-주소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 는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컨 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서 키르기스스탄 공무 원들은 한국 주소체계의 역사, 유형, 법ㆍ제도 및 도로명주소로의 주소체계 개편사업의 이해 등 강의교육을 받았 다.

아울러 주소 기반 산업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주소활용 사례 견학 등 현 장학습을 통해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주소데이터 구축·관리 체계를 체험했 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공무 원들은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데이터관리 체계, 다양한 산업서비스 스탄 주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라 제공 현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LX공사가 주관한'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 및 '2025 K-Geo Festa'행사에 참가해 AI 등 신기술과 융합하는 주소 및 공간정보 산업의 미 래상도 경험했다.

프 부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효율적 이고 표준화된 한국주소체계에 대해

인 운영구조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깊이 알게 됐고,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 고 말했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LX공사는 키르기스스탄 주소체계 현 대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 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공무원 들의 역량이 강화는 물론, K-주소체계 키르기스스탄 토지자원청 톡토수토 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정소민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 기념식 개최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 맞 아 "함께 한 90년, 더 나아갈 100년" 도약을 새롭게 다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9 일 창립 9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은 지난 1935년 창 립 이후 전북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다가올 새로운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지역 상공인과 회원기업・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 했다.

김정태 회장은 기념사에서 "전주상 공회의소는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시 절 시작해 산업화와 외환위기, 금융위 기, 팬데믹을 함께 이겨내며 지역 경 제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 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농생명바이오 산업 유망기업 지원

'스케일업 IR 피칭데이'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29일 화 교육이 진행됐다.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농생명바 이오 스케일업 IR 피칭데이'를 전북특 별자치도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개최 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 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일환으로 마련 됐다.

금년도에는 도내 창업 유관기관들이 공동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학· 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과 협력해 '농생명바이오 스케일 업 IR 피칭데이'를 통해 농생명 및 바이 오 산업에 특화된 유망기업 11개사를 발굴해 IR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벤처캐피털(VC), 투 자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해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 등을 마련했다.

29일 IR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고도

이후 양일간 7개 기관별로 IR 피칭 프 로그램을 진행해 참가 기업들이 직접 자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 고 투자자들과의 밀도 있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사는 실제 투자 확약으로 이 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IR 기회를 제공 하고자 기획됐다.

더불어 △IR 피칭 이후 관심을 보인 VC들과 참여기업 간의 후속 미팅 △멘 연통합 IR Demo-day' 행사 내 독립 프 토링 △맞춤형 투자컨설팅 등 지속적인 후속 연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은 "지역 유망 기술기업들이 장기 적으로 투자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큰 의 미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 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5

## 전북교육감 여론조사, 천호성 23.5% '선두'

### 뉴스1 여론조사결과 천호성 1위 이남호 16.2% 황호진 11.3%노병섭 7.9%

내년 6월 치러질 전북특별지차도교육 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23.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전북본부가 지난 27일부터 28 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4명을 대 상으로 차기 전북교육감을 조사한 결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23.5%로 가장 앞섰고,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16.2% 가 뒤를 이었다.

이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이 11.3%, 노병섭 전 전교조 전북지부 장이 7.9%, 김윤태 우석대 대회협력부 총장 5.7%,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4.7%,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4.3%, 유성동 좋



은교육시민연대 대표 3.4%를 기록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 '잘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낙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차기 교육감 선

거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 선거판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23.5%)는 1

위를 지켰지만, 지난 2022년 선거에서

4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10.05%로 나타났다.



이남호

천호성



황호진

이번 여론조사에서 4위를 기록한 같 은 진보 진영 후보인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7.9%)와의 단일화 논의가 가속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예측도 나왔다.

이남호 전북대 전 총장(16.2%)이 2위 를 기록하면서 전북 교육계가 주목하게 후보군이 정치권과의 접점이 넓어지면

> 원장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전북교 육감 선거에 뛰어든 가운데 도내 각 지 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여 는 등 적극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 황호진 전 부교육감(11.3%)과 천 후보와 같은 진영인 노병섭 대표(7.9%), 지난 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던 김 윤태 부총장(5.7%), 천 교수 대항마로 주목되는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4.7%), 교사 정치기본권 제약 문제로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 장(4.3), 초등교사 출신의 유성동 대표 (3.4%) 등이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 로 보인다.

한 전북 교육계 인사는 "이번 여론조 사 결과로 전북교육감 선거는 5파전으 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천호성-이남호 단일화 경합과, 이남호 전 총장 이 전 총장은 이달 1일 자로 전북연구 과의 단일화 변수, 교사 출신 후보자들 의 정치기본권 제약 문제 등이 앞으로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추석 연휴 교육기관 주차장 개방

학교·교육청 등 총 725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석 연 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오늘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육기관은 공·시립학교 696곳을 포함해 도교육 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 관등총 725곳이다.

연휴 기간 학교 등 교육기관 주차 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북 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고향 을 찾는 귀성객들이 주차 걱정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 다"며 "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 육시설인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Welcome to Jeonju Plant 2025년 현직자와 함께하는 현대자동차 우수기업탐방 & 직무체험 프로그램

## 전북대 도서관, 퓰리처상 강형원 사진기자 초청 북콘서트

### 사진 통한 시대·문화적 가치 지역민과 함께 나눠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 이 세계적 사진기자 강형원을 초청해 오늘 '중도라운지'에서 북콘서트를 연

로, LA타임스와 AP통신에서 활동하 며 1993년 LA 폭동을 취재해 퓰리처 상(Spot News)을, 1999년 코소보 난 민 보도를 통해 퓰리처상(Feature 대통령 표창, 2024년 서재필 언론문화 다.

Photography)을 각각 수상한 한국인 최 초의 이력의 소유자다.

이후에도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등 세계적 현장을 누빈 바 있으며, 최근에 는 사진을 통한 문화유산 기록과 보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선, 나를 향한 질문'을 주제로 기자로서 강형원 기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 의 삶과 세계 현장을 기록하며 느낀 성 찰, 그리고 사진을 통한 문화적 가치 확 산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강 기자는 2023년 문화유산보호 유공

상 등을 수상하며 언론과 문화 분야에 서 꾸준히 성과를 이어왔다. 지난 2025 년에는 저서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 유산'을 출간하기도 했다.

행사는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자 100명과 현장 신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세상을 향한 시 청자 50명을 포함해 총 1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 설동훈 전북대 도서관장은 "세계적 사 진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시대와 문화유 산의 이야기를 지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 /최성민 기자



강형원 A

### 우석대학교, 현대자동차 우수기업탐방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 위해 마련됐다. 본부가 29일 전기자동차공학부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에서 '2025년 현직자와 함께하는 현대자 동차 우수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 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현직자와의 교류를 통해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기 업탐방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무 역량 을 직접 확인하고 진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이리여고, 벽화그리기로 학교 구성원·시민 하나되다

### 자공고 준비 일환 "새로운 100년 첫걸음"

이리여자고등학교(교장 방극남)가 지 난 27일 학생·학부모와 함께 벽화그리기 를 진행했다.

올해 자율형 공립고 2.0 대상교로 선정 돼 2026년 3월부터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이름답게 바꾸어 놓았다. 운영하는 이리여고는 자공고 준비의 일 환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동참했다.

벽화그리기에는 학생, 학부모 외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거나 어린 자 녀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참여한 사람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은 자원봉사자들 과 몽사활농에 진심을 다하는 원광대학 교 벽화동아리 학생들은 온종일 흘린 구 슬땀으로 낡은 담벼락을 점점 희망으로

방극남 교장은 "이번에 그려진 벽화는 이리여고가 시민과 함께 희망으로 하나 토요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진행 돼 새로운 100년의 영광을 향해 내딛는 한 벽화그리기에는 70여 명의 많은 인원 힘찬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청주교회 '계시록 성취 실상증거 말씀대성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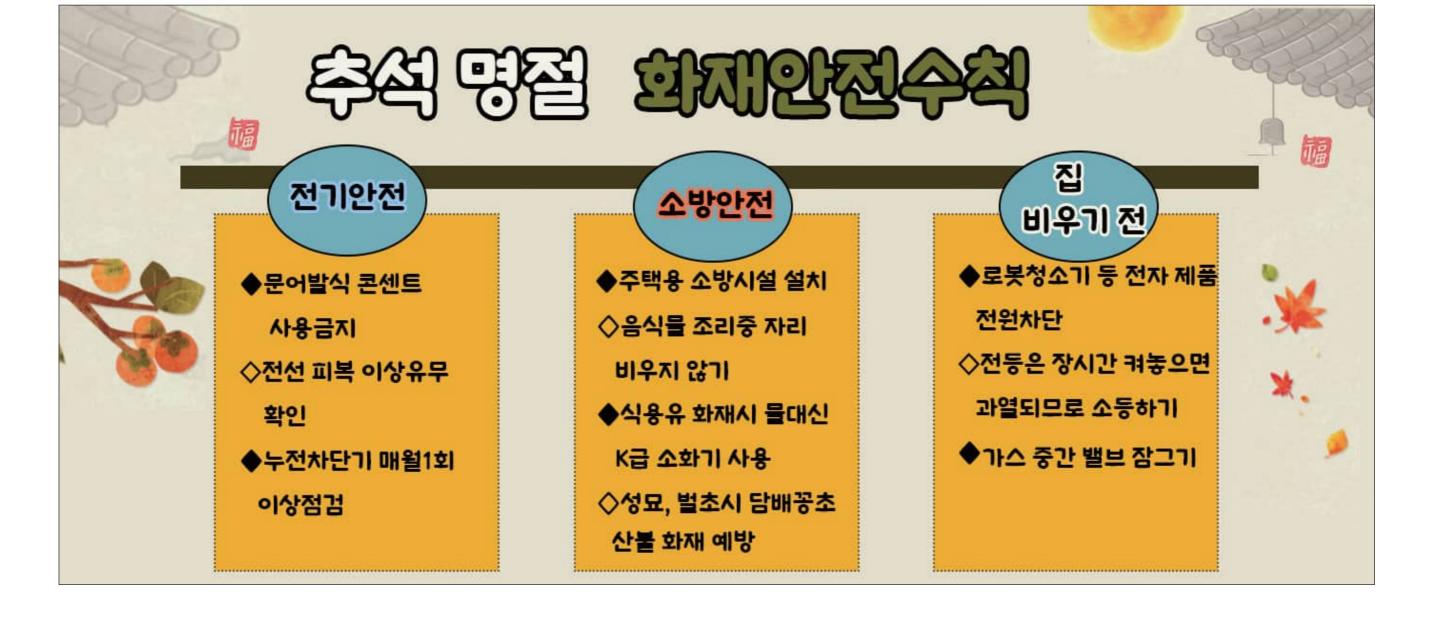
증거장막성전이 27일 청주교회에서

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가 기록돼 있다"며 "목회자라면 성도가 성 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당부

졌다.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노요 '계시록 성취 실상증거 말씀대성회'를 개 셉(가명, 60대, 장로교) 목사는 "목사로 서 모르면서 알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 이날 강단에서는 "계시록에는 가감하 힘쓰지 않은 것도 너무 부끄러웠다"고

한동철(가명, 60대) 목사는 "총회장님 경으로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며 계시록 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에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생각에 벅찬 마음이 들었다" 고 전했다. 예수교회 관계자는 "성경 말 또 강단을 통한 총회장의 요한계시록 씀 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회개하는 목회 실상 강의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으 자들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 며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의 회개가 쏟아 로도 활발한 교류와 배움의 기회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군산시,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등 경로 효친 문화 확산

군산시가 29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의 주최로 개 최된 이번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 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노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경로 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 해 마련됐다.

색소폰 연주와 금강문화예술단의 무대로 시작한 행사는 기념식에서 모범 노인과 유 공자 12명이 시장 표창을, 모범 노인 7명이 지회장상을 받으며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세대 간 존중과 화합의 문화 를 만들어가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노인 등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포 상자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함께 축하와 감 사를 보냈다.

이어 노래자랑과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 로운 순서가 마련돼 어르신들의 웃음과 박 수로 이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발전은 어르 신들의 삶과 발자취 위에 세워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정 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 미성동 '워킹 투게더 동행

군산시 미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관내 교육급여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특화사업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

이번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하

기 어려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

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

지난 27일 청소년들과 인솔자 역을 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함께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했으며 피자만들기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직접 피자를

만들어 보니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라

더 즐거웠다. 이런 체험을 자주 할 수 있으

김윤희 미성동장은 "함께 해주신 협의

체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워킹 투게더 동행 투어는 한

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감성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을 통해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

정읍 가리대마을, 주민 손으로

가을의 절경을 배경으로 열린 정읍 코스

모스 축제가 지난 26일 입암면 가리대마을

주민 주도의 기획과 참여로 마을 축제의

이번 축제는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돼,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

는 코스모스 꽃길을 배경으로 주민과 방문

객이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특히 이번 축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

단순한 행시를 넘어 마을의 자긍심을 높

이학수 시장은 "가리대마을 코스모스 축

제가 주민이 주도하는 생생한 마을 축제로

지역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앞으

로도 마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정읍=김정인 기자

축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고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자리 잡

/군산=지송길 기자

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만든 코스모스 축제 '성황'

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을 축제를 목표로 기획됐다.

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마련됐다.

면 좋겠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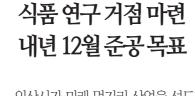
혔다.

다.

기 위해 추진됐다.

투어'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

/군산=지송길 기자



국내 최초 식물성 대체

익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푸드테크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 업단지에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했다.

연구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 거점 시 설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지원 등 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 기 반을 마련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방침이다.

된다.

익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첫발'

준공 이후에는 기업 맞춤형 대체육 시제품 제작, 산업 연계 지원, 전문 인 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푸드테크 10대 핵 됐다. 심기술의 하나로 국내외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 2,800억 원 규모 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로 확대될 전망이고, 해외 시장도 연 15~20% 성장률을 보이며 새로운 식생 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 이에 시는 연구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뒷받침해 매출 증대를 견인하고, 농산물 수요 증 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시의원, 농림축산식품부·한 연구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15억 원 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입주기업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 다.

행사는 익산시립예술단의 풍물공연 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계획 보고, 기념 사, 축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대 한민국 식품산업의 중심인 국가식품클 러스터에 식물기반 대체식품 분야 연 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미래 식품산업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며 "전북도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 래식품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푸드테크 연구지 원센터는 국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 할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 혁신을 뒷 받침하고 농업과 식품 산업을 아우르 는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해 익 산시를 대한민국 대표 푸드테크 도시 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222개병·의원·약국지정운영

군산시 보건소가 추석 연휴인 10 월 3일부터 9일까지 시민과 귀향객 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지 정·운영한다.

이외에도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 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응급진료 기관 현황 점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 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평소와 동

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 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보건지소·진료소를 비롯한 병·의 원과 약국 222개소가 날짜별로 운 영돼, 연휴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 기관 정보 는 △응급의료포털(www.e-gen. 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시도 콜센터(120) △군산시청·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 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추석명절 장보기' 전통시장 활력

### 상인 애로사항 청취 취약계층에 물품 전달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 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 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통 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시는 29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공 무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 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 도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시 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제수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위축된 상인들을 직접 찾아 원들도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캠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명절 덕 산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읍시는 29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샘고을시 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담을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에서 마련된 물품은 각 시장 상 인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3세대에 전달했다.

페인에 동참해 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 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성 또한 정읍시 실과소와 읍·면·동 직 한 명절을 보내고, 소외된 이웃 없이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 '안전'

13개 품목·463건 안전성 검사

익산시가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 확인됐다. 거리 공급에 나섰다.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 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지역 로컬푸 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 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13개 품목 463건에 대해 잔류농약이 불검출되거나 허용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은 과일류 는 대추·사과·포도, 채소류는 파·고 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배추 등이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로컬푸드 직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과일·채소 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내 로 검출된 농산물도 껍질 벗기기, 씻 기, 데치기 등의 조리 과정을 거치면 성분이 대부분 제거되거나 분해된다 고 설명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특별 모니 터링을 통해 익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소 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군·경 위문 격려

### 추석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등 감사 전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족 대명절인 추 다. 석을 앞둔 29일, 지역방위와 치안유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경 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 서도 애쓰고 있다. 해 애쓰는 군·경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국방을 위해 애쓰는 군장병들에게는 게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따뜻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군산시는 매년 설·추석에 국방의 의 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장병과 치안유 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을 찾아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에 감시를 전하고 있

계를 강화해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 통 합방위 및 치안유지 능력 향상을 위해 다.

절이면 고향 생각이 간절한 장병들에 한 격려가 큰 힘이 된다"라며 "보내주

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완벽한 국 토방위 태세와 시민 안전 확보로 보답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 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 간 유대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경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

또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 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중령)은 "명 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 지역 방위 와 치안유지에 든든한 한 축이 돼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농림축산식품부, 상생 직거래 장터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림 비촉진에 나섰다.

2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의 일 감, 멜론을 비롯해 30여 종의 농·특산 품을 선보여 농림부 직원과 방문객들 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는 쌍 화차와 귀리 선식 등 무료 시음·시식 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제공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단풍미인 쇼 축산식품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광 핑몰' 온라인 홍보전이 병행돼 현장 장에서 '상생 소비 활성화 직거래 장 판매는 물론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힘 터'를 열어 정읍 농·특산품 홍보와 소 을 보탰다. 이를 통해 정읍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직거래 장터는 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쌍화차, 태추단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 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 리였다"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와 긴밀히 협력해 정읍 농산물 경쟁력 을 높이고,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 코너도 운영돼 정읍 농산물의 맛과 우 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3만 8천8백여 명 방문

### 최다 관람객 기록 대표 야간축제 입증

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에서 열린 '제4 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성 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8~21일과 26~28일 총 7일간 3만 8,800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다 관람객 을 기록했다.

터 큰 관심을 모으며 사전예약자 2만 다. 2,7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가

을 대표 야간축제'로 입지를 굳혔다.

소-끝나지 않는 실험'으로, 인공지능 비밀 실험이 되살아나는 설정을 통해 다. 극강의 몰입형 공포체험을 선사했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도'는 체험 대기 시간을 분산시키고,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활성 화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

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운영

에도 힘썼다. 사전·현장 접수를 병행 이번 축제의 주제는 '미스터리 연구 하고 행사장 내 주차 전면 통제와 셔 틀버스 운영 등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 (AI)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중단된 련해 큰 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했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 페스티벌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데이터 쿠폰 은 새로운 세계관과 한층 발전된 콘텐 츠로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리며 홀로 그램 선도 도시 익산의 위상을 더욱 높 였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로 관람객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10월 1~5일까지 최대 4만원

익산시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 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 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가 지원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오후 5시까지 제시하면 된다. 시장별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 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 하면 각각 구매금액의 최대 30%, 농축 산물 2만 원에 수산물 2만 원까지 최 대 4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서동 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남

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 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시장 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오전 9시부터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 이번 행사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 떡집'△ 남부시장·구시장 '남부시장 광장' △서동시장 '어나더탑 커피숍 인근에 설치된다.

>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 인 가격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 제도를 마련했 한 건강한 소비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

> > /익산=최준호 기자

##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신청

### 1인당월15만원지급 지역소득기반강화 농촌지역 활력 기대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 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이달 말 신청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 구감소 지역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내 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연 180

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 는 정책으로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 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 대응 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 참여를 통해 지역 소득 기 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지역 내 소비 진

작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급된 기본소득이 관내 상권 과 농어업 유통망을 통해 선순환되도 록 제도 설계에 힘쓸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어촌 기본소 득은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라는 이중 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 안"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 돼 부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민주당 김제委, 당정협의회 열어

### 국비확보·새만금 개발 등 전방위적 과제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더불어민주 당 김제지역위원회와 지난 27일 김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새정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25.8.13.)과 연계한 국가예 산 확보 전략 및 새만금 제2산단 조성 에 따른 심포배수지 신설, 9월 초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택 국회의원,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장과 시의원, 나인권 황영석 도의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해 김제시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대응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목표로 김제시 중점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2025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 경 결정을 앞두고 심포 배수지 신설 반 영 등 새만금 지역 현안에 대해 보고하 고 지역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달라 고 촉구했다.

## 원팅으로!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더불어민주당-김제시 고위당정협의회



김제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와 지난 27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침수 피해 등에 대해서는 피해 현장 방 련 등 시민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국 가예산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지역 현 안에 대해서김제시와 함께 호흡을 맞 혔다. 춰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정부 확장 재 또한, 지난 7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정 기조와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예산 확 문 및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대책 마 보등 정책 여건이 호기를 맞이하고 있 다"고 말했다.

>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일심(ㅡ 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

> 이어 "앞으로도 당-정이 함께 원팀으 로 수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지역 현 안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정보시스템 중단 사고 신속 대응

### 처리 기한 연장 등 군민 불편 최소화 역량 '집중'

고창군이 29일 오전 심덕섭 군수 주 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군민 불편 최소 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24등 주 요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고 창군은 27일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배치했다.

업무 연속성 계획에 근거해 전산 업 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 접수 및 처리, 대체 절차 안내, 처리 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고창군은 사고 대책 회의에서 복구되 재로 정부정보시스템 중단 사고와 관 지 않은 서비스로 인한 군민 불편 최소 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 수기 처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

> 심 군수는 회의에서 "아직 복구 되지 다. 않은 서비스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 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 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처리할 긴급대응반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중 수 없는 '정부24 민원 서비스'인 전입신 심으로 각 부서에 상황 관리 담당자를 고,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주민등록 발 급, 재외국민 등록 및 해외체류 신고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 록 상세한 안내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바 우처 시스템, 장사정보시스템 등 오류 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이나 유선 신청을 통한 인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시했

한편, 군민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119는 영상신고가 불가해 직접 유 선전화로만 신고 가능하며, 문자신고 는 112로 우회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 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로 군민 안전 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이 오는 10월 9일까지 '추

고창군, 성수품 21대 품목 가격동향 게시

석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 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군은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 영하고, 5개 반으로 구성된 '물가 대책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품 21 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신 속히 파악·관리할 예정이다.

게시되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임산 물 부정유통행위 등에 대한 점검 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창전통시장 6개 소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가 진행되며,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는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진

또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 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 20% 할인 혜택을 유지함으 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정보는 고창군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울 방

>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 책을 통해 안정적인 명절 분위기 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청렴주의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절 추석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과 청 렴 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도 여섯 번째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 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 인 추석 명절을 전후로 29일부터 오 는 10월 13일까지 발령되며, 공직사 회 전반에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시민 과 함께하는 깨끗한 김제를 구현하기 고 말했다.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선물 안 주고 안 받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시는 그간 명절과 인사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청렴주의보를 수시로 발 령하며,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의무 준수와 시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수록 청렴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 정을 실천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청정 도시 김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고창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 10월 3~9일 운영

고창군은 오는 10월 3~9일 추석 연 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이용 불 편을 죄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은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 급실을 운영한다. 보건기관 12개소, 당 해 확인할 수 있다. 직 병·의원 29개소, 약국 21개소가 일 자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4일 (토요일)에는 대부분의 관내 의료기관

고창군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개소)는 연휴 기간동안 오전 9시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성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군·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추석 연 휴기간 동안 철저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

### 터 운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 청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족 대명

기' 운동 전개 △청렴 서한문 게재 △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 공품 선물 가액 기준 안내 △공직자 의 금품 수수 금지 △부패공익신고센

## 정성주 김제시장은 "풍성한 명절일

이어 "앞으로도 부패 취약 분야를

/김제=온봉기 기자

를 가동한다.

에서 오전에 정상 진료가 이뤄진다.

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며, 권역 별 진료지역을 나누어 민간 의료기관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겨울철새 보금자리 보전 '앞장'

역인 계화조류지, 동진강, 고부천 일 원의 겨울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 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 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지역 주 민이 자발적으로 겨울철새에게 먹이 를 제공하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

국립생물자원관의 최근 3년간 겨울 철 조류 통계에 따르면, 부안군은 황 새, 흰꼬리수리 등 70여종 15,000여

도다.

부안군이 지역 내 생태계 우수지 마리의 철새가 찾는 중요한 월동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군수를 위원 장으로 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는 사업유형, 사업대상지, 보상단가, 새만금공항 반경 13km 제외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부안군은 매년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국비 53백만 원을 포함 총 10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가족센터, 생활 속 요리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기관 이용 자 12명을 대상으로 총 5회기 생활 속 요리 반찬 만들기 '나의 손맛 즐거움'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부 안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자, 사회 적협동조합 '모네' 이용자, 부안종합사회복 지관과 부안군청 사례관리 대상자, 결혼이 주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들(12명)이 함께 하며 각자의 입맛에 따라 간을 맞추어 가며 완성된 요리들을 보며 흡족해했다.

또한 지난 26일은 부안읍새마을부녀회 (회장 강명례)는 참여자 12명과 호박전, 버 섯전, 동태전 등 함께 부치며 소통하는 시 간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더해 훈훈함으로 이번 프로 그램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가족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 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나누며 생동감 넘치 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 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2025년 청년의 날기념 행사성황…청년친화도시도약

고창군이 지난 27일 고창읍 담마북카페 에서 '2025청년의날 기념행사-청년미래 팝 업스토어'를 200여명의 청년과 군민이 함 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었다.

행사는 '청년이 만드는 미래, 고창과 함 께!'를 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성과를 군 민과 공유하고 청년친화도시 고창으로 도 약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제1회 고창군 청년상' 시상식이 열 려 지역사회를 빛낸 청년들의 열정과 노고 를 격려했다.

청년기업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주지 은씨는 고창의 농산물을 이용해 참신한 아 이디어와 창업 성과를 보여줬다.

내부 행사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 한 케이크・고체향수・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성과공유 전시회 등 이 운영돼 군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청년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청년 의 날을 계기로 청년친화도시 고창으로 힘 차게 도약하겠다"며, "청년이 행복하고 도 전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 과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청년농과 함께하는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청년농이 주도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과 감액 최소화 홍보를 위 해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안군 4-H연합회 하계 수련회와 연계해 진행해 청년농과 함께 공익직불금의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 적 용되는 감액제도, 올바른 직불제 이행방법 등을 안내해 직불제 부정수급 예방과 농 업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 다.

공익직불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 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이승현 4-H 연합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준 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됐고, 직불 금 감액 없이 농가소득 안정에 힘을 보태 겠다"며"앞으로도 우리 청년농들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최고 영예' 시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 효열장 손미자 씨 등 3명 각 분야 공로 인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31회 김제 시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민 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효열장, 애향장 총 5개 부문 후보자 6명에 대해 심의했 으며, 그 결과 △효열장 손미자(59)씨 등 3개 부문 3명을 선정했다.

효열장 수상자 손미자 씨는 1988년 의 위상을 높였다.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10년간 간호하고, 이후에도 시어머니 광활농협 조합장 취임 이후 지평선 광

현재는 떡공방을 운영하며 재능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부 활동에도 앞장서 등 부모를 공경하 고 이웃을 사랑하는 미풍양속의 귀감 을 널리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수상자 선은탁 씨는 재경김 제향우회 회장, 죽산초 총동문회장 등 을 역임하며 향우인들의 화합을 이끌 고, 장학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에 앞장서는 등 고향의 명예와 김제인 도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시민들이

산업장 수상자 신광식 씨는 2010년 하겠다"고 말했다.

와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정성껏 돌 할 햇감자를 지역 대표 소득작물로 육 보는 등 가족에 대한 헌신을 이어왔 성하고 생산·유통 일원화 체계를 구 축하는 등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 시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0월 8일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에서 진 행되며,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묵묵 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 시민의 장 수상 자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영예로운 시민의 장에 오를 수 있도록

> > /김제=온봉기 기자

## 완주군수, 행안부에 '조속한 결단' 촉구

### 유희태군수,6자간담회입장발표 조사를 통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군민뜻반영한공정절차필요' "통합무관상생협력시업지속해야"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 등과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법 적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담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 표했다.

해 행정안전부 장관, 전북도지사, 전주 시장,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전 주·완주 행정통합의 향후 방향과 절차 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동안 의 입장에서 한 치도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한다"고 말했다.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다"면서 "어 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군민의 뜻 이날 유 군수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열린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 6자 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아울러 유 군수는 통합 논의와 별개 간담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 로 완주의 미래 성장 전략을 흔들림 없 차 촉구했다. 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됐지만 통 합이 무산되자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여론 돼 군민들이 큰 상실감을 느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 전주 상생협 력사업은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전북도, 전주시와 13차에 걸쳐 28개의 상생협약을 진행해 왔으 며, 1차 사업인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 링공원 조성이 내달 중 착공, 6차 사업 유 군수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아직 인 고산 파크골프장은 내달 중 준공 예 정이다. 9차 사업인 만경강 물고기 철 길 조성사업은 내달 1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 또한, 유 군수는 완주군의 미래 성장 전략 중 하나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을 상생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재

마지막으로 유 군수는 "군민 여러분 유 군수는 "지난 2013년 당시 완주, 께서도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 시고, 갈등 최소화 및 완주의 미래를 함 께 만드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추석맞이 복지시설군부대 위문 활동

### 사회복지시설·자매결연 가정 군부대 방문 따뜻한 정 나눠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사 다"고 전했다. 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가정, 군 부대를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 다고 전했다.

하여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따 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 과 군부대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

한 마음을 전하고자 위문 활동을 계획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더욱 남원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이와 더불어 최경식 시장은 "위 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욱 의미 이번 위문 활동은 명절을 맞이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최경식 시장은 "추석은 가족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지 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헌정회, 유해어종 퇴치·생태문화공간 조성

### 생태체험문화공간 조성 설명회 관광 연계 6차 산업 모델 발전

완주군이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 리고 있다. 대철)와 함께 최근 토종 어종을 위협 하는 대표적인 외래어종인 블루길과 배스 등 생태계 유해 어종 퇴치 및 생 태체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명회 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환경 유해 어종 퇴치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 치로 개최됐다. 이날 유희태 군수와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및 헌 정회 관계자, 체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유의식 군의장, 도 교육청 관계자 및 ㈜하림 사료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블루길과 배스를 비롯한 유해 외래 어종은 약 40여년 전 국내에 들어와 이제는 거의 토착화 단계에 이른 생 태계 교란 어종이다.

하천과 저수지 등에서 최상위의 포

식자로 군림하면서 치어, 새우류를 비 롯한 토종 어종을 무분별하게 잡아먹 는 등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

이에 완주군과 헌정회는 생태계 교 란 어종 단순 퇴치에 그치지 않고, △ 포획을 통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1차 산업), △수매 어종의 사료·비료화 가 공(2차 산업), △유해어종 낚시와 학 생 체험·관광 프로그램(3차 산업)으 로 연계해 6차 산업 모델로 발전시켜 환경보호와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완주와 경계지역인 왕궁저수 지를 익산시와 함께 관광 자원화 하 기로 했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하림 관계자는 포획한 생태 교란 어종을 전량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전북대학 교 양오봉 총장은 생태 유해 어종 퇴 치 효과에 대해 완주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하기로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의회, 6자회담 도지사 태도에 유감 표명

### 투표확정인 듯발언 "혼란야기" "주민존중없는투표,갈등의불씨"

완주군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 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 와 관련해, "군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 가 될 뿐"이라며 29일 공식 입장을 발 표했다.

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고, 김관영 도지사 는 주민투표 일정을 직접 제시하며 이 가능한 절차"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드 미 결정된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군민들에 된 논리임을 지적했다.

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

유의식 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 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를 근거로, "통합 권고 시 행안부 장관 이날 회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 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 시했다.

군의회는 군민의 뜻이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 로 나타나 통합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율이 66%에서 71%까지 오르는 추세다.

유 의장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 권고 시 반드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 존중 △ 국가사업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 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

/완주=김명곤기자

## 'K-드론' 글로벌 축제, 남원국제드론제전이 잇는다

### 전주드론월드컵서 '드론제전' 홍보 드론국제심포지엄 참석 '관심 집중'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 을 높이는 '2025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열기가 부산 개막에 이어 전주에서 펼쳐진 가운데, 남원시가 오 는 10월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 제전 with 로봇'을 적극 홍보하며 주목 을 끌었다.

남원시는 지난 25일 전주에서 열린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현장에서 관람객 과 선수단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전주 더 메이 호 텔에서 열린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 에도 참석해 남원국제드론제전의 주요 프로그램과 개최 의의를 소개하며 관 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론제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 런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 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 는 드론공연 및 체험 페스티벌, 지역 농 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특산물과 글로벌 음식을 아우르는 글



남원시가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현장에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적극 홍보하며 주목을 끌었다.

주관하는 K-Drone to World Festival 로컬푸드 페스티벌이 마련된다. 과 연계해 드론과 로봇을 아우르는 풍 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수가 참가하는 드론・로봇 스포츠 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남원국제드 회, 드론·로봇 산업 전시와 국제 컨퍼 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토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이번 전주 홍보를 통해 국 내외 참가자들에게 "드론·로봇 산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정상급 미래와 레저·관광이 어우러진 축제 도 시 남원"의 이미지를 적극 알리고 있으 교통부와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드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의회, 정례회 마무리·현장조사 착수

## 특위 구성·행정사무감사 진행

2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정례회 일정 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순창군수 히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 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진행되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모색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견 과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로 종합 정 리해 다음 회기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정이 의 원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 가 제출한 안건 9건을 의결했으며, 특 언'을, 마화룡 의원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조성사업 촉구'를 주제로 각각 5 분 자유발언을 하며 군정 현안에 대

/순창=박지헌 기자

### EBTS남원지국 평강원서 추석맞이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실천 협동조합 활동

소셜벤처기업 ebts 협동조합 (회장 피성사랑의집 평강원(이성민 원장)을 찾아 외롭게 요양원 계신 50명의 어 르신들에게 준비해 간 과일과 음료수 를 대접하며 말동무와 안마등으로 위 로의 마음을 전했다.

녀농군등 70-80년대 노래와 노인환 하고 있다.

씨의 하모니카와 색소폰연주로 흥을 돋구며 추석을 맞아 외로우신 어르신 들에게 위로와 행복의 웃음을 전하 이승원) 남원지국 김종관지국장등 30 며 구석구석 청소와 먼지를 털면서 명은 지난 25일 사매면에 위치한 도 부모님을 대하듯 최고의 서비스로 최 선을 다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독도사랑주유소를 운영하며 신주유천하 앱을 이용 따뜻한 배달주 유와 사랑을 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으 로 남원에도 2백여명의 조합원 들이 지역에서 활동중인 가수 5명은 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 /남원=정하복기자

### 남원, 유네스코 기록유산 전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조명

남원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현대 기록저장소 남원다움관에서 순회전시 '세 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 전북도, 정읍시 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총괄 을 맡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립아 시아문화전당, 국립순천대학교, 남원다움 관이 공동 주관한다. 장흥, 광주, 순천에 이 어 네 번째로 찾은 남원은 동학농민군의 주 요 전적지인 만큼 그 의미를 더한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 과 정에서 작성된 총 185건의 문건으로 혁명 의 사상적 깊이와 조직적 실천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가치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 꾸다'는 불평등한 신분제와 수탈에 맞선 농 민들의 열망을,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관민상화를 그리다'는 협력과 자치의 실험 을 보여준다.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외 세의 침략에 맞서다'는 외세에 맞선 항쟁을,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 리가 되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씨앗이 된 혁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 존과 교육체험 존을 통해 관람객이 기록물 을 직접 살펴보고 혁명의 정신을 체험할 수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새희망 창업교육' 개설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연계

완주군이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정착 과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2025년 완주 새 희망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 터 실전 사업화 역량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총 50시간 진행되며 교육 수료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특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과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 지, 심화과정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운 영된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내 창업을 준 비 중인 예비 창업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F5·F6 비자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 비 전액 무료이며,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다. 교육 내용은 △창업 절차와 사례 △창업

지원 제도 △고객 접점 서비스 커뮤니케이 션 △마케팅 전략 △SNS 활용 △사업계획 서 작성 등 창업 준비에 꼭 필요한 실무 중 심으로 편성됐다. 심화과정에서는 상권·입 지 분석, 사업 타당성 검증, 실습 중심의 사 업계획 수립 등 보다 심화됐으며 특히 이번 교육은 전문 창업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을 함께 제공한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2025 예비귀농귀촌인 준비교육 성료

순창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관외 예 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순창군 예비귀농귀촌인 준비교육이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서 모인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이 참여했으 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 쉴랜드, 농 업기술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순 창군 주요 시설과 농장을 직접 체험하며 지 역의 농업·문화·관광 자원을 폭넓게 이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순창군 귀농귀촌 정 책 소개 △갈등 예방과 주민 간 소통 교육 △토양 이해와 기초 영농방법 △귀농 선배 특강(나의 귀농 이야기) △치유농업 및 특 산품 농장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예비 귀 농귀촌인들이 정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고루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서는 참석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 해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교육 과정 의 내실을 입증했다.

교육생 A씨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발효미 생물 연구시설, 가공장 등을 둘러보며 귀농 의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 순창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회의

### 최영일 군수 주재 대책회의 소집 피해현황 공유·대응안 집중 논의

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가 속출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 고 있다. 수는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스템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상 대응대책반을 즉시 구성했다. 초래했으며, 이 중 대국민 서비스는 436개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2등급의 핵심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중 43개(약 43%)가 장애 발생했으며, 이 중 대민용 서비스 25개, 내부처리용 서비스 18개가 영향을 받았다. 피해의 국가정보지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주요 원인은 행정안전부 피해 시스템 과의 자료 연동 서비스 장애로 분석되

최 군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 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행정과, 안전재 이번 화재는 총 647개 정부 업무 시 난과, 민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부서별 피해 현 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 이 예상되는 대민용 서비스에 대해 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전국민적인 기접수전환, 긴급복지지원금선지급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순창군의 경우, 총 99개 정보시스템 또한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9일 순창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응하고자 군수 주재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순창군> 공식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현황을 게시하고, 민원 접수는 전화,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안내 하고 있다.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 장수군, 국가사적 침령산성 발굴조사 현장 점검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가 국가사적인 침령산성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발굴조 사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의 총 5억원 규모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을 받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했으며, 산성 내 하단부에 위치한 집수정 2기와 내성벽 등 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는 물론 통일신라와 후삼국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어, 당시의 정치·문화적 상황과 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3호 집수시설에서는 '거칠산군(居漆山郡)에 가는 실 8섬'이라는 내용의 목간이 출토됐다.

거칠산군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 대로, 과거 고대사회에 장수군과 부산 지 역 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밝히는 중요한 1 차 사료가 확인됐다. 장수 침령산성은 지난 2023년 8월 31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 며, 삼국시대 전북 동부지역의 역사성과 가 야·백제·신라의 역학 관계를 밝히는 핵심 유적으로 손꼽힌다.

또한 성벽 축조 방식과 집수시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 닌 역사 현장으로, 후백제와 통일신라의 고 유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민 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자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연 최대 150만 원, 대출 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자를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5세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순으 로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생계·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 력과 청년정책팀에 하면 되며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무주군 누리집(www.muju. go.kr)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옥정호 천리길 행복걷기 성황리 개최

임실군체육회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 센터가 주관한 '전북삼천리길 페스티벌 in 임실 옥정호 천리길 행복건기' 행사가 지난 27일 옥정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 안전소방위원장, 류관송 경찰서장, 유효선 임실교육장, 이재문 농협임실군지부장 등 3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국화 화분 1 만2천여개와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만발하 여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행사 당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운암 면 쌍암리 주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돼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도왔으며, 지역 운 수골밴드와 난타라올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져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 국내산농축산물구입시 최대 2만원 환급

임실군이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체감 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임실 전 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금 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 주는 행 사가 진행된다.

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 추진하며, 내달 을 받을 수 있다.

1일부터 5일까지 임실 전통시장 내 국 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12개 점포 선고기마트, 신풍청과, 우리봄이네, 임 까지 운영된다.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실야채, 잡곡미곡상회, 중앙정육점, 초 원정육점, 한가네정육점, 해남상회)에 서 진행된다.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농림 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은 구매 당일 발행된 영수 증을 지참해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 (관촌상회, 문화고기집, 수산정육점, 신 에 제시하면 되며, 오전 9시부터 17시 거친 후 환급되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 이 필수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 행사 기간 농축산물을 최소 3만4천원 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활기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 29일 개소식 개최 영농 편의 대폭 강화

진안군은 29일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 업소(주천면 정주천로 1298)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로 관내에 농기계 임대사업 소가 총9개소(본소 1개, 분소 8개)가 운 영돼 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이 크 게 증진될 전망이다.

개소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 해 군 관계자, 지역 농업인,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임대사업소는 총 16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해 주천면 지역 영농에 필요 한 주요 농기계 24종 47대를 갖췄다.

이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장비를 임대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경 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29일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주천면 정주천로 1298)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서 전춘성 군수는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로 농업인들의 농작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영농 환경 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임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 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천면 임대사업소 신축 으로 진안군은 본소(진안읍)를 비롯해 정천, 마령, 동향, 부귀, 안천, 상전, 백 운, 주천 등 9개소의 임대망을 구축하 농업인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게 됐으며, 지역 맞춤형 임대 서비스 제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성황리 마무리

이번 대회에는 100M(112명), 안산 등을 거치는 국내 최장 거리

100K(134명), 38K-P(680명), 38K- 코스로, 총 112명이 출전해 43명이

수의 청정 산악 지형을 누비며 기 최초의 100마일 코스 완주라는 점

선수(30시간25분23초), 이하늘 선 스페이스를 비롯한 21개 브랜드가

현 선수(15시간08분16초), 김연운 기를 더했다. 또한 참가비 일부(1만

선수(19시간14분20초) △38K-P 원)를 장수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심재덕 선수(4시간31분01초), 윤현 지역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정 선수(5시간31분01초) △38K-J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이형모 선수(4시간33분27초), 이현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장수군은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 부정상에 올랐다.

J(635명), 20K(402명) 등 총 5개 코 완주에 성공했다.

국내 첫선 100마일코스'개최

며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

스에 1,963명의 선수가 참가해 장

코스별 우승자는 △100M 조계훈

수(38시간12분49초) △100K 임정

주 선수(5시간57분44초) △20K 이

량을 겨뤘다.

규호 선수(2시간24분58초), 신기해

선수(2시간37분44초)로, 각각 남녀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100마일 코스(170.8km)는 장수종

합경기장에서 출발해 팔공산, 봉화

산, 장수덕유산 서봉, 침령산성, 장

이는 국내 트레일레이스 역사상

행사장에서는 타이틀스폰서 노

부스를 운영하며 풍성한 축제 분위

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 E-gen홈페이지서 운영 현황확인

임실군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내 달 3일부터 9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및 약국 지정·운영을 통한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여 군 다.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7개소를 포함 한 의료기관 36개소, 휴일 지킴이 약 업소로 신고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 국 13개소가 지정·운영된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운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원에 비상

진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추석 연 휴 기간 24시간 응급실 운영(구급차 24시간 대기)을 통해 진료 공백이 생 기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추석 연휴 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세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부 일정은 E-gen(홈페이지)과 응급의 료정보제공(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

>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 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 >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 푼다

### 5,548농가에총 32억 7천여만원지급

무주군은 내달 2일까지 지역 내 5,548농가에 '2025년 농민공익수당' 총 3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 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인 경영체에 60만 원, 2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는 구성원 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북특별 자치도에 거주 및 농업경영체(또는 양 봉업)를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 며, 매년 추석 명절 전후에 지급되고 있 다. 농민공익수당 전용 무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 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 정으로, 신규 대상자이거나 카드 분실 다"라며 "지난 25일부터 무주사랑상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카드 권 충전을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충전 잔액은 나이스정보통신 고객센 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 터, 고향사랑페이 앱, 농협 발급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 센터 산업팀에서 받은 (재)발급 신청서 신상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를 가지고 농협에서 (재)발급받으면 된 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업무협약 체결

###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9일 군청 군 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지사장 강희완)와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용담호 인근 수천휴게소 를 리모델링해 경관 친화형 쉼터와 체 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방문객 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 써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이 투입 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5억 원을 지원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5천만원 과 군비 3,500만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시설개선공사를 거쳐 2027년 1월 준공 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용담호 쉼터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



생태습지, 수변길 등 인근 생태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 명소를 조성 하고, 탐방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 탐방객

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안군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것"이 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력 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의회, 정책실명제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진안군의회 김 의한 '진안군 정책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 운동 조직의 공로를 제도적으로 인정 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 안정 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 정비 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 신설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을 담 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 아 정책실명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 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활 성을 강화하고 행정 제도의 신뢰성을 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 민규 의원(가 선 부개정'으로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 거구)이 대표 발 을지도자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이는 마을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군정 행사 협력 등 지역사회와 군정 과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새마을 성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새마을회의 지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의회,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선거구)이 대표

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에 따른 용어의 수정 △조례 제명을 고말했다.

진안군의회는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김명갑 의원(나 관리조례'로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성격 발의한 '진안군 홍 에 맞는 제명 및 용어 개정으로 효과 삼한방센터 운영 적인 조례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 관리 조례 일부개 며 이에 더욱 체계적인 홍삼한방센터 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2회 임시 의 운영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인삼·홍삼·한약재 등의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가격안정 및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진안=전길빈 기자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 완주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 완주군에 2백만원 기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배아현 씨가 지난 26일 완주 와일드&로 컬푸드축제 현장에서 기탁식을 열고 200만 원 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배아현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완주이고, 할 머니와 친척들이 지금도 완주에 살고 있어 완 주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군 민들을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배아현 씨의 따뜻한 기 부는 군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귀 한 선물"이라며 "기부금은 문화·복지 등 군민 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사람 중심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고향을 사 랑하는 마음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임실 신덕면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추석맞이 김치 나눔 행사

임실 신덕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유한철) 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행복)가 지난 26일 이 행복 부녀회장 자택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 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 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20여 명이 절임,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손수 정성을 담아 김치를 담갔다.

정성껏 완성된 김치(5kg, 1통)는 마을별로 배 부되어 신덕면 17개 마을의 독거노인과 취약 계층 가구에 전달했으며, 마을당 5가구씩 총 85가구가 이번 나눔의 혜택을 받았다.

이행복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 로 정성을 모아 만든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 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국제라이온스협회,군산수해민에 긴급생필품기탁

### 총1천만원상당라면등전달 이재민위로·회복응원

지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군산지역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 해 총 1천만 원 상당의 긴급 생필 품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지역사회와 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위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 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 다"라고 전했다. 련됐다.

전달된 성품은 △라면 107박스, △백미(10kg) 80포, △화장지 100 묶음으로,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 겪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중심

29일 전달식에 참석한 박성춘 총재는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 이번 성품 기탁은 기후위기로 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지송길 기자



## 장수군 한우협회, 장수군에 한우고기 51kg 기탁

###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장수군은 장수군 한우협회(지부 장 이상식)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취약계층 지 원을 위해 시가 약 197만 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용 51kg를 기탁했다고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장 2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한우는 전북공동 모금회를 통해 장수군노인장애인복 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 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명절 음 식을 선물할 예정이다.

장수군한우협회는 매년 명절과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마다 지역사회에 이웃돕기 성 품을 꾸준히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 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 문화 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축산농가가 군민과 함께하는 수군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시기에 마련된 이번 나눔을 통해 소 외된 이웃들에게 경제적·정서적 위 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식 장수군한우협회 지부장 은 "지역에서 정성껏 키운 장수한우 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우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순창 강천사, 순창군에 성금 1천만원 기탁

· ## 2두가 행복한 순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금 10,000,000 원

(금일천만원)

강천사 주지 지일

것으로 전해지는 순창의 천년고찰 나눔을 실천했다.

최근 강천사 지일 스님은 순창 군청을 찾아 저소득 아동과 문화 을 맡은 이후 지역을 위한 실질적 소외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인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1천만원을 최영일 군수에게 전달 품어왔다"면서 "이번 기탁이 작은

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로, 조 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불교 초대 7인 종정 중 한 분인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석전 박한영 대종사가 1912년부 터 1918년까지 연대암을 비롯해 강천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구암사, 만일사 주지를 겸임한 유 서 깊은 전통사찰이다.

지일 스님은 "올해 초 주지 소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강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 이웃과 함께하는 수행자로 살아가

/순창=박지헌 기자

# 행복드림복지회두리ENG,고창군에5백만원기탁

김선례)가 지난 26일 '제19회 전북 육대회라는 의미있는 날에 힘이 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 되었으며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 공적 추진을 위해 고창군장애인체 역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 육회에 5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 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을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김선 아가겠다"고 뜻을 표했다. 례 대표는 "고창군에서 진행되는

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대표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복드림복 이번 기탁은 전북공동모금회를 지회 두리 ENG의 따뜻한 나눔이 통해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에 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쓰일 예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 민·관협 력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고창=백종규 기자



### 무주읍발전협의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무주군은 무주읍발전협의회가 지난 29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회장은 "오늘 장학금은 무주읍발전 협의회 회원들이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천 원 국수 부스'에서 직접 일하며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쓰자는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발전과 이웃 행 복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뒷 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 추석맛이 추어탕 밀키트 기부

지난 2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에서 추어탕 밀키트를 기부 했다. 이번 기부는 영양가 높은 전통 보양식인 추어탕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 형태 로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 춘향라이온스클럽(회장 이주현)은 "작 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듯한 힘이 되기 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게하는 나 눔 활동을 꾸준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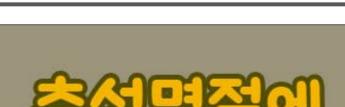
/남원=정하복 기자

### 정읍시 새마을부녀회, 추석맛이 김치 400포기 나눔

정읍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가 추석 을 앞두고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홀 몸어르신과 소외계층 250여 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정읍시 새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새마을부 녀회장 25여 명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준비했 다. 완성된 김치는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전달돼 훈훈한 명 절 분위기를 더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전 좌석 안전때 착용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필수 칙용



## 안전개리 유제

무리한 추월을 삼가고 차 간 안전 거리 유지



## 짜통차 안전절검 받기

장거리 운행 전 자동차 점검 필수 특히 제동장치와 타이어 점검 필수



## 음주운전 절매 금제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一事一言〉



### 한국 극우세력은 왜 중국을 혐오하는가(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나 사회 에 해로운 대상에 대한 혐오는 육 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혐오의 사회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혐오를 생물학적 혐오 - 본능적 혐오 혹은 원초적 혐오라고 할 수도 있다 - , 후자 를 사회적 혐오라고 한다.

사회적 혐오는 주로 사회의 생 존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반응이다. 사회적 혐오 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 에 대한 감정반응이므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혐오 현상은 심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 등으로 인해 자신과 사 회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고 느끼 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주민이 나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해진다는 것이다. 사회 적 혐오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무조건 악이다. 어떤 사회가 박쥐나 돼지를 혐오한다 고 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 단이든 간에 특정 집단을 혐오하 는 것은 악이다.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인 사 람은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지 어 떤 경우이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 문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적 혐오는 사랑과 존중의 대상 이자 공존의 대상이어야 하는 사 람을 그가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한다는 점에서 악일 수밖에 없다.

한국 극우세력의 중국 혐오는, 만일 중국이 한국의 안전을 현저

하게 위협한다면, 그나마 일말의 타당성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의 극우세력은 중국이 한 국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지 않음에도 광적으로 중국을 혐오한다. 이것은 극우세력의 중 국 혐오가 자연발생적인 혐오가 아닌 조작된 혐오 혹은 왜곡된 혐 오임을 의미한다. 한국 극우세력 의 중국 혐오에 객관적 근거가 있 는가 없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이 평범한 중국 관광객들까 지 혐오하는 것은 악이다.

혐오는 강한 대상이 아닌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운 대상을 싫어하 거나 미워한다. 그렇지만 자신에 게 해로운 대상이라고 해서 사람 들이 항상 혐오감을 체험하는 것 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 롭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대 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혐오 가 아닌 분노나 증오를 느낀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 운 동시에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를 느낀다.

혐오가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 이라는 것은 혐오가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표출된다는 사 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지주계급인 양반과 농민 계급인 평민 사이의 관계에서 평 민은 자신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양반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했다. 그렇지만 양반은 평민들이 자신 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에 별로 개의치 않았 다. 평민은 양반을 위협할 정도로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반은 평소에는 평민

을 향해 분노 - 평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는 예외이다 - 하지 도 않았고 평민을 증오하지도 않 았다. 그냥 쓴 외 보듯 혐오했을 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 이 일본인에게 느꼈던 일반적인 감정이 분노나 증오라면 일본인 들이 한국인에게 느꼈던 일반적 인 감정은 혐오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에 게 해로운 대상을 강한 대상과 약 한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감정을 체험하는데, 자기보다 강 한 대상에 대해서는 주로 분노와 증오를 느끼지만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를 느낀다.

혐오는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 이므로 사회적 혐오는 필연적으 로 약한 사람들이나 사회집단을 향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혐오 는 지배자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혐오는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 이므로 한국의 극우세력이 중국 을 혐오한다는 것은 그들이 중국 을 약한 국가로 여긴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객관 적인 현실 인식일까? 중국은 한 국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더라 도 절대로 약한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단적으로 중국은 핵무장 국 가이고 달에 우주선까지 보내고 있는 국가이지 않은가.

한국의 극우세력이 중국을 깔 보고 혐오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 보다 훨씬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 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어 서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미국을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는 천하제

일 강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 의 충성스러운 일등 하수인인 자 기들도 천하무적이라고 믿는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약하고 조 그마한 아이가 깡패 형을 뒷배 삼 아 자기보다 강하고 큰 아이한테 마구 깝쳐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극우세력이 천 하무적 강국이라고 믿고 있는 미 국은 중국과의 무력대결에서 승 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국가방 위전략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폴 리티코(POLITICO) 보도에 의하 면 미국의 국방부가 새로 작성하 고 있는 국가방위전략(NDS)은 중국 및 러시아 억제보다 국내 및 지역 임무를 우선시하고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이 북중러 같은 핵무장 국가 들과의 무력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본토 쪽 으로 밀려나거나 후퇴해야만 하 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미국은 중국을 약하다고 보지 않는데, 한 국의 극우세력은 중국을 호구 취 급하고 있다. 한국 극우세력의 중 국 혐오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 오적인 비정상적 감정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북의 도전, 문화올림픽에서 하계올림픽까지

전북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문화·체 육·관광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을 준 비하고 있다. 국제행사와 지역 협력, 관 광상품 출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도민 등 관광객 모두가 체 감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는 '문화올림픽'이라는 큰 비전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미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 미를 지닌다.

지난 26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 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리는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전북 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와 공유하는 장이 다.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97년 출범 이래 45개국 3,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대표 무대로 자리 매김했다.

같은 기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는 전국 최초의 공동 문화도시 프로젝트 인 전북권 문화도시 박람회가 개최된다. 전주·익산·완주·고창 등 4개 법정 문화 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각 도시의 정체성 을 소개하고 시민 체험과 공연을 선보이 며, 개막식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 영상과 퍼즐 퍼포먼스가 상영됐다. 이는 지역 문화가 단순한 향유 차원을 넘어 국제적 브랜드와 미래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관광 분야에서도 전북은 발 빠르게 움 직이고 있다. 추석을 맞아 도청 로비에 서는 전북 관광굿즈 팝업스토어가 열려 관광기념품과 굿즈를 선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북투어패스 글로벌 상품이 출시돼 해외 시장과의 연

결을 본격화했다.

체육 분야 역시 제도와 현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도자 공개 모집, 표준계약서 도입, 복지포인트 지 급 근거 마련 등이 이뤄졌다. 이는 선수 와 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운영체 계 확립을 목표로 하는 변화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전북이 전국 최다로 '국가유 산 야행' 사업지에 선정되며 야간 관광 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도내 8개소 가 선정돼 5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 보했으며 지난 4월 익산을 시작으로 고 창과 군산에서 열린 야행에는 이미 11 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앞으로 부안, 전주, 남원 등으로 확대되는 이 야 간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 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문화, 관광, 체육, 유산이 유기 적으로 맞물리며 전북은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 라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 에 견인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더 나아 가 이러한 성과가 '문화올림픽'의 비전 으로 확장되고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와 이어질 때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 어 세계 속의 문화·스포츠 중심지로 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민과 행정, 그리고 지역 기업과 문화 예술계가 함께하는 협력의 힘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 러한 연대와 상생이 이어질 때, 전북은 가을의 풍요를 넘어 사계절 내내 빛나는 문화·체육·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 오늘의시

### 강으로 가서 꽃이여 / 김사인

이마에 손을 얹고 꽃이여 이마에 여윈 손 얹고 꽃이여 어둡게 흘러가는 강가로 가자 어린 자갈들은 추위에 입술 파랗고 늙은 여뀌떼 거친 종아리

기' 등의 시를 발표했다.

강으로 가서 우리는 강으로 가서 다만 강물을 보자 하늘엔 찬 별도 총총하리 시든 풀의 굽은 등엔 서리가 희리

시인 약력: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서의 시'를 발표했다. 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이곳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취한 듯 슬픔인 듯 강으로 가서 다만 묵묵히 강물을 보자 이마에 손 얹고 꽃이여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조정환, 박노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 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 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건륭15년명감로탱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회화, 탱화

-지정일 - 2000년 11월 1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박물관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전주지사 010-9845-4113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인후지사 010-8640-6855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会村エルー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 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민선 8기 장애인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기울 여 왔으며, 일자리, 차별방지 정책, 인권침해 방지책,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위한 정책 등을 종 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드는데 적극 대 응하고 있다.

###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 만드는 데 다양한 분야 적극 노력

### 장애인 편의를 위한 노력

센터(연면적 1,090㎡, 지상 3층)를 장애 인 어울림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관내에 흩어져 통합 업무 추진이 어렵던 장애인 단체 8개소, 보장구수리센터 등을 통합 입주시키는 한편 교육장 및 다목적실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의 교육, 회의 추진에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및 스쿠터를 있다.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2023 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 입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내 전동보장 진 구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 세 노인(49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 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사업 시행을 통해 2025년 현재 보장금액을 전국 지 자체 최고 7,000만원(본인 부담 없음)까 내 직원 1,524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지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3,371 천원의 보험금을 보장했다.

현재 23가구에 83,600천원을 지원하여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3명), 등록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출입로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장애인일자리 창출 노력

그동안 남원시는 장애인의 근로를 통 한 소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일자리 대상자는 2023년~2025년까지 남원시는 2022년 구 향교동 행정복지 12명 증가했다. 현재 총 158명의 장애인 다. 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며,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시청,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37 개소에 49명,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보건 지소, 도서관 등 34개소에 76명, 특화형 일자리는 33명이 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 장애인 차별 방지와 각종 돌봄서비스 추 립 정책

야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 한 차별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5년 6월, 9월 두 차례 청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데 한층 더 기여했으며, 장애 아울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및 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29명), 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80명), 발달장 애인 바우처 서비스(60명) 제공 등 발달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시설 및 관련 기관이 있으며, 장애인시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 시책 추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 시책 5개 사업을 운영하여 공공부문 장애인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

적으로,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4월 제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신장장애 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

이 제도는 심한 신장장애인을 대상 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비 자부담금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 내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투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아울러, 교육, 고용, 교통 등 다양한 분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 피해 예방 및 수사,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법률 자문 및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과 정기 합동 업으로 재가 여성장애인 CCTV 설치 사 업을 시행하여 2020년부터 총 94대를 여성장애인 보호에 힘써오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시설에 다양한 지원 추진

남원시 관내에는 총 11개 장애인복지 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주 또는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가 보다나은 혜택을 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한세상과 평화의 집, 장애인종합복지

2024년 시의회 및 2025년 4월 지역사회 팡이 보행 체험을 통해 장애인 보행 시

또한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 보장협의체 장애시민분과 주최로 제95 이동지원센터에 차량 22대, 저상버스 4 통해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방침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회 춘향제 축제 구간 내 휠체어 및 흰 지 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이다. 있으며, 추후 저상버스 5대 추가 도입을

/남원=정하복 기자



